

제1장 어린 시절

강명석(姜明錫)은 조선(朝鮮)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한 대한제국(大韓帝國, Empire of Dai Han) 시절인 1900년(고종 37년) 10월 13일(토) 강주백(姜周伯)과 신재선(申在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대한제국이란, 1897년(고종 34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월)까지 국권이 일제(日帝)에 강제로 빼앗길 때까지 우리나라의 국호를 말한다.] 그렇지만, 강명석의 호적(戶籍)에 있는 생년월일(生年月日)은 1904년(고종 41년) 11월 5일(토)로 실제의 나이보다 무려 4년이나 늦다. 또한, 강명석의 이름은 셋으로 알려졌다.

호적(戶籍) 이름(본명)은 강성도(姜聖道)였다. 그러나 모든 공적인 문서에는 강성도가 아닌 강명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필명(筆名)이 혹은 예명(藝名)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남부 테네시주 내쉬빌)를 졸업하고, 프리드-하드먼대학(Freed-Hardeman College, 테네시주 헨더슨)에 편입하여 공부할 때 Myungsuck Kang(강명석)의 ‘명(Myung)’ 발음을 미국인들이 어려워하므로 ‘Moonsuck Kang(강문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귀국 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강문석(姜文錫)으로 활동한 기록을 그의 문필활동에서만 찾을 수 있다.

강명석의 이름을 ‘강문석’으로 사용한 기록들은 『기독신보(基督申報)』(주간신문, 1937.4.14.)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주제의 논문(論文)을 게재(掲載)할 때를 시작으로, 중앙기독교청년회(YMCA)의 기관지인 『청년(靑年)』(월간잡지)에 6회(1937.11; 1938.2; 1938.6; 1938.9; 1938.10; 1939.7.) 정도이다. 그러나 그 이전 모든 기록에서는 강명석으로 사용하였기에 앞으로 필자는 호적에만 있고 사용한 적이 없는 ‘강성도’와 짧은 기간 사용했던 ‘강문석’보다는 ‘강명석’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강명석이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慶尙南道) 밀양군(密陽郡) 하서면(下西面) 양효리(良孝理)로 1895년(고종 32년)부터 사용해 오던 지명(地名)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시절인 1933년에 하서면이 무안면(武安面)으로 개칭이 되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1995년 1월 1일(일) 법률 제 4774호로 밀양군(密陽郡)과 밀양시(密陽市)가 통합시(統合市)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그때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지명(地名)이다. [밀양시-밀양소개-밀양역사-역사/유래]

강명석의 출생지인 양효리는 ‘골이 깊고 물이 맑을
 뿐만 아니라 땅(토지)이 걸고 기름져 살기 좋은 마을’
 이라는 ‘곡양촌(谷良村)’의 ‘양(良)’과, ‘남회당(覽懷堂)
 이이두(李而杜)가 오우당(五友堂)을 짓고 오 형제가 함
 께 기거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孝道)와 형제에 대한
 우애(友愛)인 효우(孝友)를 실천한 마을’이라는 ‘효우촌
 (孝友村)’의 효(孝)를 합쳐서 ‘양효리(良孝理)’로 부르고
 있는 법정리(法定里)이다. [밀양시-밀양소개-밀양역사-지
 명유래-무안면-양효마을]

강명석의 집안은 양효장로교회(良孝長老教會, 현 예
 장 통합)를 출석하였는데, 그의 모친 신재선은 그 누구
 보다는 신앙심이 두텁다고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강명석의
 나이 4세 때인 1904년(고종 41년)에 유아세례(幼兒洗
 禮, infant baptism)를 받도록 주선하였다. [감리교회전
 도국(1982), 『남녀교역자이력서』, 『조선남감리교회30년기념보
 』(영인본), 대한기독교감리회, 242.] 그렇다면 밀양지역에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 전해졌을까? 또한, 강명석의 가
 족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들은 다양한 신
 학과 교리적 배경을 가진 교파형 교회(denomination
 church)에서 파송(派送)을 받고 내한하였다. 때문에, 그
 들은 자신을 파송한 선교본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

서 각 교파의 선교사들과 협력하므로 공존(共存)의 길을 모색하였다. 공존의 길은 ‘장로교회 선교 연합공의회(The United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조직과 ‘선교지역 분할협정’이라고 알려진 ‘선교지역 예양협정(mission are comity agreement)’ 혹은 ‘교계예양(敎界禮讓)’이라는 협의체(協議體)를 들 수 있다.

‘장로교회 선교 연합공의회’는 1889년 10월에 내한한 최초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의 선교사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 덕배시(德倍時), 1856.~1890.]가 ‘미국 북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원두우(元杜尤), 1859.~1916.]와 함께 연합선교회(The United Council of Missions of the American and Victorian Churches)’를 조직하였다. [곽안련(1918), 『장로교회사전휘집』, 조선야소교서회, 12.] 그러나 호주 장로교회 데이비스가 폐렴(pneumonia)과 천연두(天然痘, smallpox)로 인해 갑자기 1890년 4월 5일 별세하므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별세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1892년 10월 18일과 11월 3일에 ‘미국 남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7인 선발대(7인의 개척자) 선교사들이 내한하였다.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 그리고 테이트의 여동생 매티 테이트, 레이

놀즈의 아내 팻시 볼링, 전킨의 아내 매리 레이번과 홀몸으로 동참한 리니 데이비스 등이다.] 그후 2개월이 지난 1893년 1월 28일 미국 남·북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모여 “조선에서 기독교의 신경(信經)과 장로교회 정치를 사용하는 ‘연합교회(union church)’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장로교회 정치를 쓰는 선교 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하였다. [곽안련, 『장로교회사』, 13, 15, 16, 71; Junkin, W. M(1893), “Korea” The Missionary 3.]

‘장로교회 정치를 쓰는 선교 공의회’는 약칭(略稱)으로 ‘장로교회 공의회(The Presbyterian Council)’라고 하였다. 나중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선교부’와 ‘캐나다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선교부도 가입하므로 장로교회 4개 교파 모두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장로교회 공의회에서는 각 교파 선교사들의 선교지역들을 분담(分擔), 조정(調整), 그리고 예양(禮讓)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선교지역 분담, 조정, 예양 규칙’을 정하여 갈등(葛藤)과 마찰(摩擦)을 피하였다.

‘선교지역 분담, 조정, 예양 규칙’은 미(북) 감리교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와 미국 북 장로교회가 1892년 6월 11일에 합의한 것이다. 첫째, 인구 5

천 명 이상의 대도시 혹은 개항장(開港場)은 공동선교 구역으로 한다. [개항장은 근대 이후 국제조약에 따라 개방된 항구를 지칭했으며, 외국인의 정박·접대·무역처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항구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개항장에는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고 감리서(監理署)가 설치되었다.] 둘째, 인구 5천 명 미만 되는 도시와 지방들은 선교사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준 선교기지(sub-station)가 설정되어 정기집회가 열리는 교회의 소속교과 선교지역으로 한다. 셋째, 미개척지역은 새로 오는 교파의 선교지역으로 한다. 이 원칙이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선교지역 조정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사실상 적용하였다. [국민일보(2011.6.23.), 「이상규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17)」, ‘초기 선교정책- 선교지 분담 정책’.]

선교지역 분담, 조정, 예양 과정을 보면, 먼저 1893년 미국 남·북 장로교회가 협정한 결과 북 장로교회는 ‘평안도(平安道), 황해도(黃海道), 경상북도(慶尙北道)’, 남 장로교회는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제주도(濟州道) 포함’ 지방을 선교지역으로 삼게 되었다. 다음으로 1898년 미국 북 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가 협정한 결과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咸鏡道)’지역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북 장로교회로부터 함경도 ‘원산(元山)’지방을 양도(예양)받았다. [한국기독교

역사학회(2011),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68~169.]

경상남도(慶尙南道) 지방은 1903년 10월 20일(화) 미국 북 장로교회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간의 협정에서 지역조정에 합의하였다. 먼저 호주 장로교회는 남서쪽지역인 ‘울산(蔚山), 기장(機張), 언양(彦陽), 양산(梁山), 거제(巨濟), 진해(鎭海), 고성(固城)’ 등을 맡았다. 다음으로 미국 북 장로교회는 동북쪽지역인 ‘김해(金海), 웅천(熊川), 밀양(密陽), 영산(靈山), 창녕(昌寧), 칠원(漆原), 창원(昌原)’ 등을 맡았다. [국민일보, 「이상규의 한국교회사(17)」.]

또한, 인구집중지역이며 개항장인 부산(釜山), 동래(東萊), 마산(馬山) 등은 미국 북 장로교회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양 교파 선교부의 공동선교구역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에도 양 교파 선교부 간에 협정은 계속되었는데, 1913년 말경 미국 북 장로교회가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에 경남지방의 모든 지역을 양도(예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설립된 교회들까지도 양도하고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부는 완전히 철수하므로 경남지방은 호주 장로교회의 단독 선교구역이 되었다. [국민일보, 「이상규의 한국교회사(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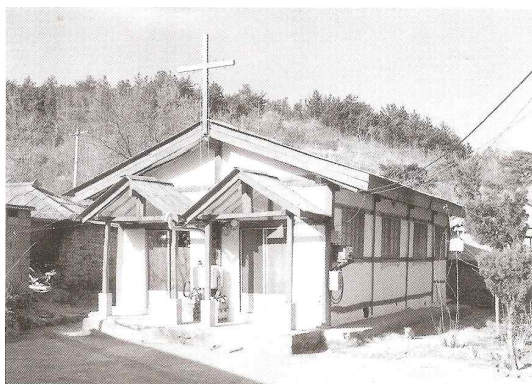
밀양지역에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시기를 1893년(고종 30년) 4월 20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의 주장이라

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 북 장로교회 베어드[William M. Baird, 배위량(裴偉良), 1862.~1931. 숭실대학교 설립자] 선교사와 그의 조사(助師)인 서경조[徐景祚, 1852(철종 3년)~1938. 조선 장로교회 최초 7인 목사 중의 한 사람]가 밀양에 들러 복음을 전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박선경(2003), 『밀양지역 기독교100년사』, 밀양교회사연구소, 145~151.]

그런데 베어드(Baird) 선교사와 서경조 조사가 다녀간 4년 후인 1897년(고종 34년) 11월 어느 날 경상북도 청도(淸道)에 사는 김경수(金敬守)가 밀양에 사는 증조부 김희복(金禧福)의 집에 들러 복음을 전했다. 이때 김희복의 온 가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며,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김희복의 가정에서 시작된 밀양지역 최초 기독교 예배를 밀양지역 최초교회인 춘화장로교회(春化長老教會)의 출발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1897년 11월 30일로 추정(推定)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선경, 『밀양 기독교 100년사』, 145~151.]

밀양지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강명석의 모 교회인 양효교회는 춘화교회 교인들이 시장에서 노방전도(路傍傳道)를 할 당시 강명석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고 전해진

다. 양효교회는 현재 ‘경남 밀양시 무안면 양효2길 20’에 예배당이 있다. 그러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단서(?)와 함께 강명석이 유아세례를 받은 해가 1904년이라고만 알려졌다. 그러나 양효교회 역사기록의 미비로 인해 6·25전쟁 이전의 교회 발자취, 역대 목회자, 강명석의 정확한 유아세례 날짜와 집례(執禮)한 목사에게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강명석 가족이 출석했던 양효교회 예배당(밀양지역기독교100년사)

그런데 필자가 강명석의 자료 수집차 양효교회를 방문하여 당시 담임 목사인 홍성진에게 “강명석 목사는 1904년 유아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이때 홍성진은 양효교회 설립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교회 설립을 하자마자 세례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명석 목사님이 1904년에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양호교회 설립 시기는 1904년보다 적어도 1년에서 3년 이상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1898년부터 1903년 사이에 양호교회가 설립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홍성진 인터뷰(2011.5.25.)]

강명석은 어려서부터 기독교교육(基督教敎育)을 받으며 성장한 가운데, 출석하고 있는 양호교회에서 설립한 사립(私立) 영신보통학교(永信普通學校)에 8세 때인 1908년에 입학하여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근대식(近代式) 교육을 받게 된다. [「강명석 이력서」, 간세이가쿠인대학 입학원서] 우리나라의 근대식 교육은 대부분 선교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학교(敎會學校)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근대학교(近代學校)의 효시(嚆矢)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견해가 있다.

먼저는 원산에 새로 부임한 덕원부사(德源府使) 겸 원산감리(元山監理) 정현석(鄭顯奭)이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과 원산항통상사무(元山港通商事務) 정헌시(鄭憲時)와 함께 1883년(고종 20년) 함경남도(咸鏡南道) 원산에 설립한 ‘사립 원산학사(元山學舍)’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산학사.] 다음으로는 독일(Germany)의 대한제국 외교 고문인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목인덕(穆麟德), 1848.~1901.]가 1883년 8월에 설립한 ‘통번학교(通辯學校, School for Training Interpreter)’로 외국어 전문학교인 동문학(同文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문학.]

또 다른 견해로는, 먼저 조선 시대 일반 백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양에 서양식 국립병원으로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廣惠院, 제중원(濟衆院), Widespread Relief House] 안에서 1885년(고종 22년)부터 실시된 ‘의학교육(醫學敎育)’이다. [박형우 외 3명(1999.6.), 「제중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1885-1908)」, 『의사학』 제8권 1호, 대한의사학회, 33~39.] 그리고 미국 북감리교회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아편설라(亞扁薛羅), 1858.~1902.] 선교사에 의해 1885년 8월 3일 2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배재학당(培材學堂, 현 배재중·고등학교)’인 기독교 선교학교이다. [정재걸(2017.5.29.), 『에드인뉴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